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유)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택 국내 출시

- 한국, 첫 론치 국가 중 하나로 선정돼 8월부터 본격적인 판매 돌입
- 연속성을 지원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뒷받침
-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넘나드는 애저 생태계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김우성 이사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연속성을 제공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스택 (Azure Stack)'을 출시했다. 한국은 초기 출시 국가 46개국 중 하나로 선정돼, 8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애저 스택은 애저의 IaaS와 PaaS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제공한다.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데이터는 기업이 보유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기존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싶어도 데이터 보관 및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자사의 인프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해 최신의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사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간의 호환성 제공을 통한 기존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아닌 통합 운영으로 일체의 마이그레이션 등이 필요 없이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 동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호환성을 지원했지만, 완벽한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애저 스택은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그대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연속성을 보장한다.

애저 스택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된다. 공식 하드웨어 파트너사 델EMC, HPE, 레노버가 애저 스택 하드웨어를 출시했으며, 시스코, 화웨이도 곧 출시 예정이다. 기업의 인프라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하여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번들로 구성된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애저 스택이 유일하다.

이같이 기존 애저 서비스와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이 간편해지고 손쉽게 클라우드를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애저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오픈소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하던 오픈소스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애저의 최고의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모델 적용이 필요한 환경이나, 규정 및 정책상 클라우드 사용이 어려운 기업, 인터넷 연결이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이 어려웠던

기업들도 애저 스택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스택 고객을 위해 탄탄한 지원 정책도 공개했다. 특히, 하드웨어 파트너사와 협력해 고객의 고충을 공유하고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하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하드웨어 파트너사가 총괄한다. 고객은 문의처를 불문하고 원하는 지원사를 선택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2020년까지 기업의 90%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김우성 이사는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기업의 90%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연속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시장에 없는 상태였다”며 “애저 스택은 고객의 클라우드 연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이 언제 어디에서든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탄탄한 애저 서비스를 통해 관리 및 처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애저 스택의 전반을 소개하는 웨비나 세미나를 8월 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